



30 일 기도

로힝야를 위한



“여호와와 함께 계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함께 계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함께 계시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26절)

전 세계의 로힝야족은 다양한 형태의 시험과 맞닥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중 어떤 것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게 두시지도 않는다. 올 해 라마단 기간 동안 기도를 통해 로힝야족을 축복하는 일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생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사회 복지와 지속적이고 진정한 영적인 변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안에 일 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한다.

B

신체적 영역 : 로힝야족의 육체적 건강과 관련된 필요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자.

DAY 1

샤주(Shaju)는 자연 속에서 형제들과 함께 농장에서 자랐던 어린 시절 미안마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현재 말레이시아의 좁은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가끔 그녀는 어린 시절 누렸던 공간과 자유를 그리워 한다.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활동적인 놀이는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샤주의 아이들과 세계 곳곳에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로힝야 아이들을 위한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자.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문을 여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자.

DAY 2

살리마(Salima)는 건강 상태가 아무리 심각해져도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몇 명의 친구들과 친척들에게서 간호사들이 그들을 치료했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로힝야족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그들을 향한 존경심을 가지고 치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더불어 그들이 차별 없는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DAY 3

조밀라(Zomilah) 는 출혈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매우 사랑하여 많은 의사들과 병원들을 찾아다녔지만, 조밀라는 여전히 아프며 창백한 얼굴이다. 조밀라와 같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많은 로힝야 여성들이 있다. 조밀라는 그녀의 이웃들과 근처 아이들을 지원하는 주요 후원자이기도 하다. 조밀라와 같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이들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로힝야족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DAY 4

파티마(Fatima)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의사들은 그녀가 가진 병의 원인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신자들이 파티마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녀의 상태가 잠시 진정되었지만 결국 병세는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 파티마를 치료 하는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원인을 찾아 치료 되도록 또한 파티마가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녀의 마음이 열리기를 위해 기도하자.

DAY 5

로힝야족과 관계를 맺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육체적 치료를 위해 간구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치유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은 단순히 한 선지자 이상의 존재임을, 진정 살아계신 분임을 그들로 알게하시고, 로힝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소서.

DAY 6

교회들이 전세계로 흩어진 로힝야족에게 전인적으로 도움을 손길을 주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을 받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두려움, 선입견, 단일함이 종종 그들을 가로막고 있다. 성령님께서 전세계의 교회를 움직이게 하셔서 이런 장애물들을 넘어서 로힝야족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

L 생활의 영역 : 로힝야족의 직장과 가족들을 부양할 능력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요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자.

DAY 7

미얀마 라카인 주(Rakhine State)에 있는 로힝야족은 생존을 위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친척들에게 물질적으로 의존 하는 경우가 많다. 미얀마의 현재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많은 로힝야족이 직장을 잃었고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일반적인 송금 방법은 현재 막힌 상태이다. 미얀마에 있는 로힝야족에게 새로운 취업의 기회와 라카인 주에 있는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송금 방법이 다시 열리도록 기도하자.

DAY 8

이스마일(Ishmail)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직장에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로힝야 난민들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고용주들이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어떤 고용주들은 코로나 검사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데 이는 최대 일주일 치 급여를 선불로 내는 정도이다. 이스마일과 같이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 많은 로힝야족에게 물질의 공급이 이루어 지도록 기도하자. 고용주들이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하자.

DAY 9

로힝야족은 35년간 미얀마에서 떠나고 있는데, 3년 전 그들의 고향에 있었던 폭력 사태로 인해 약 100만명의 사람들이 떠나는 대규모 탈출이 있었다. 2년 전에는 집단학살을 피해 약 백 만 명에 이르는 많은 인구가 미얀마 본국으로부터 탈출을 감행 했다. 방글라데시는 많은 수의 난민들을 받아왔는데 그들을 탐탁지 않아 한다. 현재 그들은 국제구호단체들로부터 생필품 구매를 위한 지원, 의료지원, 아주 기본적인 주거지원을 매 달 받고 있다. 그들은 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고, 8살이 넘어서도 학교에 갈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약 3 km 이상 이동할 수도 없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살 수 없다. 이 문제를 위한 장기적 해결책이 마련되도록 기도하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해결책도 마련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DAY 10

아누와(Anuwar)는 15살 때 말레이시아로 넘어왔다. 아누와가 가족들을 집에 두고 떠났다는 걸 알았을 때 그의 부모는 화를 냈다. 부모님은 나중에 아누와가 말레이시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신매매자들로부터 그를 구해주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다. 7년이 지난 후에 아누와는 방글라데시의 부모님께 그의 남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원하는 소망과 함께 그 돈을 돌려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로 인해 아누와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집에 돈도 보낼 수 없게 되었다. 아누와는 캠프에 있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낼 수 없다면 왜 이렇게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아누와와 그 밖에 많은 로힝야족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위해 기도하자. 또한 이런 어려움과 의문을 통해 아누와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DAY 11

자스민(Jasmin)은 3년 전 그의 남편과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녀의 남편은 폭력적이었고 일 하는 것과 아이들 양육을 거부했다. 몇 달 전, 자스민은 그의 남편을 집 밖으로 쫓아냈고 현재 그녀가 4명의 아이들을 홀로 보살피는 상황이다. 첫째와 둘째 아이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지만 학비 문제가 걸려 있다. 하나님께서 자스민 가족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그리고 그녀의 상황을 보고, 듣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도록 기도하자.

DAY 12

라픽(Rafik)은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 사는 중년 남성이다. 그는 근처 기독교인들로부터 그가 할 수 있는 곳 어디서든 일을 찾고 있다. 그는 4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이 있는데, 딸들의 혼인을 위해 어떻게 돈을 구할 지 걱정하고 있다. 현실은 점점 더 캠프 밖을 나가 구직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난민 캠프에 있는 어떤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나 국제구호단체의 번역가 또는 지역 공동체를 위한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실직상태이고 배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광신자 집단이 일을 하고 있는 로힝야족을 위협해서 많은 양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을 착취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E

정서적 영역 : 로힝야족이 과거와 현재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그들의 정서적 필요를 주님께 올려드리자.

DAY 13

로힝야족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여러 차례의 폭력을 경험해왔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오늘날 이들을 가장 박해 받는 민족 중 하나로 여기게 된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 원치 않은 계속된 이동과 머무름 곳이 정해지지 않은 현실,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등 매일의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들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정신적 충격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포용, 사랑, 관심을 통해 위로 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DAY 14

누루잔(Nurujan)은 미혼모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녀와의 결혼 약속을 어겼다고 한다. 게다가 그녀는 15살의 장애를 가진 여동생을 돌보고 있다. 비록 그녀는 난민 캠프에서 지내고 있지만 로HING야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는 외로운 상태이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그녀를 얕잡아 보고 그녀의 여동생에게 못되게 굴기도 한다.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외로워하는 배척 당한 여성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알고 경험하도록 기도하자. 그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가치를 인정받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도록 기도하자.

DAY 17

난민 캠프 안에 있는 많은 벵갈 노동자들은 로HING야족을 향해 심한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무시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거나 심지어는 그들을 착취하기까지 한다. 로HING야족과 일하는 벵갈 노동자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닌 친절함과 존중의 마음으로 로HING야족을 대하며, 마음에 상처를 입은 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하자. 사역자들의 희생적인 사랑과 긍휼사역을 통해 벵갈 노동자들과 로HING야족 모두에게 주님의 빛이 비취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DAY 15

파이자(Faiza)의 가족은 2017년에 예수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방글라데시로 도망쳤다. 그 후로 그녀는 난민캠프에서 살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녀의 5살 난 아들은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어서 캠프 클리닉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야만 한다. 그녀의 남편은 신앙 때문에 여러 차례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 남편은 종종 마약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파이자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자.

DAY 18

시편 146편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성매매의 희생자가 되는 십대 소녀들과 과부들, 고아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데도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데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데도.(시 146:8-9; 147:3)

DAY 16

17살 어린 소녀인 안나(Anna)는 미얀마에 부모님을 두고 큰오빠 가족들과 함께 방글라데시로 왔다. 몇 달 전 그녀의 오빠는 안나를 한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집안으로 시집 보냈다. 안나는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고,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가끔씩 안나는 부모님이 너무 그리워서 우울해지면 눈물을 멈출 수 없을 때가 있다. 생이별을 하게 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자.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함께 살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을 찾게 되도록 기도하자.



S

사회적 영역 : 로HING야족 공동체와 가정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자.

DAY 19

읽고 쓸 수 있는 합의된 문자가 있는 언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지만 이것은 로HING야족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자신의 언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것은 로HING야족에게 큰 용기와 존엄, 그리고 소망을 가져다 준다. 다방면으로 읽고 쓰는 능력이 발전하고 난민 캠프 안에 있는 로HING야족에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 흩어져 있는 로HING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서 말씀의 통해 열매를 맺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DAY 20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현재 미얀마에 붙어 닦친 정치적인 변화를 사용해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로HING야족을 향한 무관심, 선입견, 심지어 증오가 있던 곳에 공감과 위로가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일한 인간으로서 그들의 존엄성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로HING야족을 향한 그들의 변화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DAY 21

코로나로 인한 규제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많은 로힝야 가족들은 가게 수입이 줄어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게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하는 십대 소년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져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자.

DAY 22

미국 전역에 있는 로힝야 난민들은 로힝야 공동체가 자리를 잡은 밀워키(Milwaukee)에 계속해서 정착하고 있고 공동체는 점차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1 km도 안 되는 하나의 거리에 네 개의 로힝야 상점이 있고 로힝야 가족들은 다닥다닥 가까이 붙어서 집단 주택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어를 배우려는 필요성을 잃어 버리거나 외부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밀워키에 거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로힝야족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이 사랑 받고 있고 환영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자. 믿음의 사람들이 로힝야 공동체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자.

DAY 23

미얀마의 로힝야 사역자들은 라카인(Rakhine State) 지역의 로힝야족에게 태양열로 작동하는 난로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태양열 난로는 에너지와 연료 비용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관료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로힝야족에게 사회 기업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들에게 태양열 난로가 분배되고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워크샵을 제공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로힝야족이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자.

DAY 24

바울 사도는 여러 시대를 거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요청한다(딤후2:1-2). 로힝야족이 있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그 외의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신체적, 사회적,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만들어 가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자. 더 많은 로힝야 난민들의 망명을 허락해서 그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S

영적인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구원, 진리, 정의, 변화를 가져다 주도록 로힝야족의 영적인 필요를 주님께 올려 드리자.

DAY 25

대부분의 로힝야족은 민속 이슬람을 따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데 악령으로부터의 축복, 저주, 보호를 위해 지역 주술사들을 찾아가고 있다. 로힝야 문화에서 코란수(qur'anic water)와 부적의 사용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대부분의 로힝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보다 죽은 영혼들을 더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일 3:8).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영혼들을 묶으셔서 로힝야족에게 놓인 모든 저주의 속박을 푸시고 이들이 악한 영혼들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기도하자.

DAY 26

방글라데시에는 몇몇 기독교 신자들과 사역자들이 있다. 이들은 믿음을 갖게 되거나 믿음을 곧 가지게 될 로힝야족 난민들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방글라데시 신자들과 로힝야 난민들은 서로에 대해서 인식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거나 다른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믿는 자들과 그들을 찾는 이들이 서로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도록 기도하자. 방글라데시의 로힝야족 신앙 공동체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DAY 27

성경 번역 작업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성경 번역 중 하나의 중요한 단계는 사람들이 번역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특별히 현재의 규제 상황 속에서 이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작업을 맡은 사역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시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로힝야족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지혜가 커져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DAY 28

이브리즈(Ibreez)는 거의 7년간 말레이시아에서 살았다. 그동안 어디에서 일하던지 그는 공동체의 지도자로 지내왔다. 12월에 그는 좋은 직장을 잡았고 심지어 코로나 봉쇄 기간에도 아주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일을 그만두고 급진적인 가르침으로 명성이 있는 한 무슬림 선생 아래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권유 받고 있다. 이브리즈와 그와 같은 권유를 받고 있는 다른 젊은 남성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기보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

DAY 29

한 무슬림 종교 지도자는 라미야(Lamiah)와 모든 로힝야 여성들에게 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친구와의 만남을 금지시켰다. 그는 선한 무슬림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무슬림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하고 의심 없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마주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힝야 여성들이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대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DAY 30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며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시편 67편)